

| | | | | | |
|---|-----------------------------|--|-----------------------------------|--|-----------------------------|
|  인천광역시 | 보 도 자 료 | |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본입니다 | | |
| | 배포일자 | 2023년 3월 24일(금) 총 2매 | | | |
|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 담당자 | • 식품분석과장 • 담당자 | 주광식 권성희 | ☎ 440-5461 ☎ 440-5462 | |
| 사진(이미지) | <input type="checkbox"/>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input type="checkbox"/> 있음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인천시, 시민 건강 위한 ‘먹거리 안전망’ 확보
- 보건환경연구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감시 사각 분야 발굴 및 안전관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망 사업’은 유해 식품 차단을 위해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 온라인 유통 식품 ▲ 부적합 우려 식품 ▲ 위생 취약 유통 식품 ▲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기획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간편식의 단백질 함량조사, 2분기 온라인 판매 답례품 안전 실태 조사, 3분기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겨냥한 제로 칼로리/무가당 식품 모니터링, 4분기 위생물수건 형광증백제 사용 실태조사 등 분기별로 분야를 나눠 기획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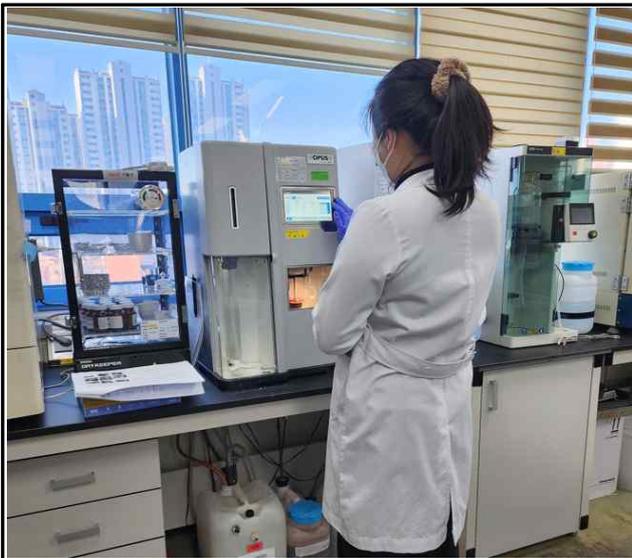
특히, 지난 2월 온라인 판매 간편식 60건에 대한 단백질 함량조사 결과, 5건의 표시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계획된 기획사업 이외에도 식품 중 위해 물질 분석 기술과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고려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관련 사진>



먹거리 안전망 대상 제품 분석



온라인 수거 간편식